

## 2016년 문예진흥기금 국제교류 기획공모 지원심의 심사평

- 일시 : 2016. 10. 25(화), 14:00 ~ 16:30
- 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의 집 세미나 1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고원석, 구태환, 박향주, 장인주

### 1. 지원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과정

2016년 문예진흥기금 국제교류 기획공모 사업은 '기획형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기획)', '국제교류플랫폼협력지원',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진행되었다. 본 사업에 대한 신청건수는 총 33건, 그 중에서 심의를 통해 21건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심의회의에서는 신청서에 명기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국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인지 평가하였다. '쿠바 아바나 박람회'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일정을 고려하여 서면심의로 미리 진행하였으며, 접수된 신청건 중에서 이번 공모의 해당 사업기간에서 벗어난 경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2. 세부 심의평

'기획형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기획)' 지원의 경우는 평가요소 및 신청자들의 지원항목의 당위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했다. 동시에 기대되는 활동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본 사업이 지원자들의 원활한 창작활동을 지원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했다. 시각7건, 연극3건, 무용2건 중 지원자의 예술적 역량과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시각 6건, 연극1건, 무용2건을 최종선발하였다.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언어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성공적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기에 인재육성과 국제교류를 위한 공연예술가들의 언어수행 능력도 향후 요구된다.

개인적인 학술목적의 대학 프로그램은 이번 레지던스 지원사업과 부합하지 않아 배제하였다. 무용의 경우 기존의 레지던스프로그램에서 보기도문 네팔지역의 진출이 매우 눈에 띄었다. 향후 레지던스 프로그램 파트너십 개발 확대하여 한국 예술가의 해외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국제교류플랫폼협력지원'사업은 새로운 플랫폼을 개척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인지를 평가하였으며 시각2건, 연극3건, 무용1건, 음악1건, 전통1건을 선정했다. 시각예술의 경우 교류대상기관이 적절했고, 사업의 내용이 명확했다. 각각 기대되는 성과가 분명한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본 지원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원자들이 더 탄탄한 국제교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무용의 경우에는 스페인 지역과의 교류가 두드러졌는데, 향후 유럽지역과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를 기대한다.

국제교류 플랫폼 지원사업 신청자 중 오히려 레지던스 사업에 부합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부분은 기획형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으로 변경지원하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서면으로 진행된 전통예술분야의 경우, 주최측의 행사의도와 현지 청중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본 지원사업을 통해 국제교류 다양한 플랫폼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은 베니스비엔날레 본전시 그리고 이스탄불 비엔날레 본전시 정식 초청을 받은 작가들로서 결격사유가 없었으므로 4건 모두 선정하였다. 올해 지원되는 본전시 지원이 내년 출품할 작품들의 사전준비비 성격임을 감안하여 작품제작에 소요될 부분에 대한 지원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중견작가와 신진작가 교류 분포된 본 지원사업 통해 각 비엔날레 본전시에 거둘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 공연예술분야에 대한 중기지원에 대해서도 향후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국제교류 기획공모 심의위원 일동